

# “예술이 일상 되는 도시” 영암군, 문화 인프라 확충 ‘속도’

### 128억 투입...문화정책 4대 전략 작은영화관·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민선 8기 영암군이 ‘문화가 삶에 녹아드는 도시’를 내걸고 문화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영암군에 따르면 군은 총 128억원을 투입, 문화정책 4대 전략을 중심으로 문화 향유 기반을 꼼꼼히 구축 중이다.

주요 4대 분야는 ▲일상 속 문화예술 활성화 ▲문화유산 보존과 마한 역사 복원 ▲전통 도자 문화 계승 ▲하정음미술관 기반 예술교육 확대 등이다.

특히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로 국비 317

억원을 확보해 마한 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역사 관광 기반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암군은 주민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과 문화강좌, 생활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국악·서예·미술 교육을 비롯해 문화시설을 연계한 전시·공연 활동과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예술인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지역 예술단체 ‘영암예총’이 출범해 창작 활동의 중심점을 마련했다.

공연 분야에서는 ‘폭풍우 치는 밤에’를 시작으로 마술공연, 아리랑가요제 등 다양한 장르의 기획 공연이 연말까지 예정돼 있다. 지난해 문을 연 8석 규모의 ‘작은영화관’은 연간 2만명이 찾는 지역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았으며, 어르신 대



영암군이 운영 중인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 ‘엄니, 극장가시게’에 참여한 주민들이 영화 관람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영암군 제공>

상 프로그램 ‘엄니, 극장가시게’는 3천300여명이 관람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문화 인프라도 빠르게 확충되고 있다. 옛 대동

공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문화재생사업(총 40억원)은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영암읍 교동지구에는 2029년 개관을 목표로

로 문화예술회관도 건립될 예정이다.

도자문화 보존을 위한 영암도기박물관은 전통 장작가마 운영, 도예 교육, ‘영암도기 리빙오브제’ 브랜드 출시 등을 통해 지역 대표 문화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스마트박물관 시스템도 도입돼 관람 편의성도 높아지고 있다.

하정음미술관은 올해 총 7개 전시와 함께 아트 놀이터, 어린이 미술교실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의 생활화’를 실현 중이다. 월출산을 주제로 한 미디어아트 전시도 추진될 예정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예술과 문화가 일상이 되는 환경을 조성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을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기자



## 목포고용노동지청, 중대재해 예방 포럼 ‘성료’

### 안전의식 제고·우수사례 공유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최근 삼호중합문화센터에서 지역 핵심산업인 조선업과 건설업의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25년 하반기 중대재해 예방 포럼’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

이번 포럼은 올해 상반기 관내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대응으로 ‘새로운 각오, 새로운 다짐, 새로운 출발’을 기치로 조선·건설업계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원·하청 간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조선업 모기업과 협력업체 대표, 건

설현장 소장 등 400여명이 참석해 지역 내 안전 관리 현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1부에서는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 결의대회’가 열려 조선·건설업 종사자들이 안전의지를 다졌고, 2부에서는 현장의 취약 지점을 중심으로 한 우수 안전관리 사례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실효성 있는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이재희 목포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안전관리 기법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확산해 중대재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 함평 농특산물, 말레이시아 첫 수출길

### 현지 물류기업 업무협약 체결 함평천지 유통클러스터 첫걸음

함평군이 말레이시아 수출을 발판으로 농특산물 해외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포트로지스(주)(Portlogics Global Sdn. Bhd.), 로지스올(주)(LogisAll Co. Ltd.)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물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물류 협력 강화, 주요 수출 품목, 상호 협력 모델 발굴 등 안정적인 농특산물 수출을 위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특히 함평군은 포트로지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하며 상호 협력 관계를 공고히 했다.

이번 간담회는 함평군이 추진 중인 ‘함평천지 유통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함평천지 유통클러스터는 오는 9월 공식 출범 예정인 민간 협력체로, 농협중앙회 함평군지부·지역 농축협 6개소·원예조합공동사업법인·통합RPC 등 주요 농업 관련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클러스터는 민관의 유기적 협력으로 유통·수출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양성과 브랜드 육성과 마케팅 등 종합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상의 함평군은 “물류·유통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함평 농산물의 세계 진출 기반을 다지겠다”며 “향후에도 해외 박



이상익(오른쪽) 함평군수와 문필 포트로지스(주) 말레이시아 현지법인장이 최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플라자 몽키아라에서 농특산물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함평군 제공>

람회에 참가해 수출 경쟁력을 높일겠다”고 말했다. /함평=김연수기자

## 영광 우산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

### 12일부터 운영...안전요원 등 상시 배치

영광군은 7일 “오는 12일부터 8월17일까지 ‘우산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물놀이장에는 조합 놀이대, 슬라이드 미끄럼틀 등 다양한 놀이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매시 50분 운영 후 10분간 휴식을 갖고,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운영을 중단한다. 매주 월요일과 우천 시에는 휴장한다.

이용 인원은 1일 400명(오전·오후 각 200명)으로 제한되며, 현장 접수 30%, 인터넷 예약 70

%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터넷 예약은 이용일 기준 7일 전부터 전날까지 가능하며, 영광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용 대상은 영광군민으로 한정되며,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또한 5세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이 필수이며, 안전을 위해 아쿠아슈즈 착용이 의무다. 슬라이퍼나 크로스 등은 착용이 제한되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영광군은 수질 검사와 시설 점검을 완료했으며, 안전관리요원과 산림공원 직원을 상시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최대 수심 30cm 미만을 유지, 안전사고 예방에 대응한다. /영광=김동규기자



## 해남공룡박물관 물놀이 체험장 개장

### 3-13세 대상...수영복 등 착용

해남군은 7일 “해남공룡박물관 내 물놀이 체험장(사진)을 개장했다”고 밝혔다.

개장 기간은 다음달 24일까지로,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40분까지만 문을 연다.

해남공룡박물관 본관 앞에 조성된 물놀이 체험장은 슬라이드 2종과 물놀이 종합놀이대,

바닥 분수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을 갖추고 있다.

관리동에는 안내실과 샤워실이 구비돼 있으며, 내부 휴게실과 외부 그늘막 쉼터 공간이 있어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동안 가족들이 기다릴 수 있도록 했다.

공룡 물놀이 체험장은 유아와 어린이에 특화된 시설로 3-13세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시 수영복과 아쿠아 슈즈, 수영모를 착용

해야 하며, 미끄러운 크로스, 샌들같은 신발은 신을 수 없다. 음식물 반입 금지 규정도 있으니 방문객들은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물놀이 체험장엔 안전요원과 안내요원 등이 배치될 예정이다.

해남공룡박물관 물놀이 체험장은 공룡박물관 입장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해남군청 해남공룡박물관(061-530-5946) 또는 해남공룡박물관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해남=박필용기자

## “노란 꽃물결” 신안 홍도 원추리축제 열린다

### 11-20일 섬 홍도 일원

신안군은 7일 “오는 11-20일 ‘2025 섬 홍도 원추리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홍도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자생 원추리 원락지로, 매년 7월이면 수십만 송이의 셋노란 원추리가 바다와 맞닿아 정원을 수놓으며 장관을 연출한다. <사진>

특히 홍도는 천연기념물 제170호(1965년 지정)로 보호받는 천연섬으로, 서해 한가운데 떠 있는 자연 박물관이라 불릴 만큼 원시 생태를 간직하고 있다. 우리나라 천연보호구역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한다.

“2025 섬 홍도 원추리축제”는 여름 바다와 비, 원추리꽃이 어우러진 생태축제로, 지역 주민이 참여해 섬전체를 정원처럼 꾸미는 것이 특징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홍도의 10경과 원추리꽃이 어우러진 풍경은 무더위를 식히는 청량한 오아시스 같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가족, 연인들이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양훈기자

## 완도-모도 운항 신조 여객선 ‘섬사랑 2호’ 취항

### 운항 시간 15분 단축·차량 적재력 ↑

청산 모서항에서 ‘완도-모도’ 항로를 오가는 신조 국고 여객선 ‘섬사랑 2호(사진)’가 정식 취항했다.

7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청산 모서항에서 관련 기관 관계자,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항식이 열렸다.

새로 건조된 ‘섬사랑 2호’는 18t 차도선으로 여객 정원 80명, 운항 속력 14노트, 적재 능력은 중형 승용차 기준 15대다.

기존 여객선에 비해 운항 시간이 15분 단축됐으며 차량 적재 능력도 향상됐다.



‘섬사랑 2호’는 7월 완도에서 모도까지 편도 21km를 하루 3번 왕복 운행한다. 취항 시간은 완도 출발 오전 7시10분, 오전 11시, 오후 3시30분이다.

기존 섬사랑 2호는 올해 선령이 만료돼 안전상의 위험이 우려됐으며 한정된 수송 능력으로 도서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에 군에서는 2023년부터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예산 확보, 운영 관련 협의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주민 숙원을 해결하게 됐다.

완도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섬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상 교통 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더 크고 빨라진 섬사랑 2호가 취항하면 해상 교통 편의 향상은 물론 도서 지역의 농수산물 수송도 원활하게 될 것”이라며 “여객 안전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완도=윤보현기자